

전남 볼링, 국가대표 산실로

광양시청 가수형·김동현·백승민·여자부 곡성군청 김현미 태극마크

후보 2명·상비군 3명도 배출

가수형·김동현·백승민(이상 광양시청)이 2023년 전남볼링협회(회장 박종남)에 따르면 최근 대구와 경북 등지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남 소속 4명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후보 2명, 상비군 3명도 배출했다.

광양시청 소속 가수형·김동현·백승민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최복음과 백종운(이상 광양시청), 이영승(전남일본)은 상비군에 포함됐다. 여자부에서는 곡성군청 김현미가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이승원(고흥군청)과 김문정(곡성군청)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가수형(합계 1만 1728점·에버리지 244.3)과 김현미(합계 1만 1332점·에버리지 236.1)는 각각 남녀 부문 1위를 차지, 국가대표에 승선했다. 가수형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



가수형 김동현 백승민 김현미

았다. 지난해 대학무대와 국가대표에서 활약했던 김동현은 2년 연속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백승민은 광양시청에 입단한지 2년만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는 청소년국가대표선발전 결승전에서도 1위를 차지,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박종남 전남볼링협회장은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태극마크라는 값진 결과를 맺었다"며 "이들이 국가대표로 활약해 전남볼링의 위상을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쇼트트랙 새 황제' 박지원 세계선수권 2관왕

1500m 이어 1000m도 우승 최민정은 은메달 2개 획득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박지원(서울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선수권대회 개인전 2관왕을 달성했다.

박 지원은 12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3 KB금융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자 1000m 결승전에서 1분27초741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번 대회 개인전 전 종목에 출전한 박 지원은 남자 500m에선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난 뒤 기권했으나, 주 종목인 1500m에서 우승한 데 이어 1000m까지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첫 번째 바퀴 말미에 가장 앞으로 나선 박 지원은 이내 스테인 데스멧(벨기에)에게 선두를 내주고 뒤에서 레이스를 펼쳤다. 기회를 엿보던 박 지원은 3바퀴를 남겨놓고 아웃코스로 질주를 시작했고, 데스멧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한 뒤 속도를 끌어올려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다.

데스멧은 1분27초974로 2위, 스티븐 뒤부아(캐나다)가 1분28초069로 3위를 기록했다.

한편, 4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에 도전한 린샤오쥘(한국명 임효준)은 전날 남자 500m 결승에서 트랜스폰더(기록추정기)를 착용하지 않고 뛰는 실수를 해 실격당한 데 이어, 이날 남자 1000m에선 준준결승 탈락으로 개인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여자 1000m 결승에선 최민정이 1분29초679의 기록으로 산드라 펠레부르(네덜란드·1분29초361)를 앞서지 못하고 2위에 올랐다.

펠레부르는 500m와 1000m 정상에 올라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박 지원이 12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3 KB금융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대회 남자 1000미터 결승전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프린, 알파인 월드컵 87승 '역대 최다 우승'

미케일 시프린(미국)이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 역대 최다 우승자로 우뚝 섰다.

시프린은 11일 스웨덴 오레에서 열린 2022-2023 FIS 월드컵 알파인 여자 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41초 77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시프린은 월드컵 통산 87번째 우승을 달성, 기존 알파인 월드컵 최다 우승 기록인 잉에마

르 스텐마르크(은퇴·스웨덴)의 86승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우승 신기록을 세웠다.

스텐마르크는 월드컵에서 1975~1989년 86승을 쌓았다. 이후 34년 동안 그 86승에 도달한 선수가 없었는데, 시프린이 전날 오레에서 열린 대회 경기에서 타이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연이틀 승수를 쌓으며 역대 최다 우승 단독 1위에 등극했다. /연합뉴스

2012년 12월 월드컵 첫 승을 따낸 시프린은 올해 1월 24일 이탈리아 크론 플라츠에서 열린 대회 전 경기 우승으로 여자부 최다승 기록이던 린지 본(은퇴·미국)의 82승을 넘어서 83승 고지에 올랐고, 이후 4승을 추가하며 스텐마르크까지 앞질렀다.

현역 선수 중엔 라라-구트 베라미(스위스)의 36승이 시프린 다음으로 많은 우승 기록이라 시프린은 오랜 기간 알파인 월드컵 최다 우승자 타이틀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양궁팀·광주시체육회 사격팀 3년간 2억5천만원씩 재정 지원 받는다

전남 4개팀도 대한체육회 공모 선정

광주·전남지역 신생 실업팀과 창단 예정팀이 대한체육회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2023년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에 2개팀이 선정돼 3년간 5억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창단한 광주은행 양궁팀과 시체육회 소속으로 창단예정인 사격팀이다.

각 팀에 2억5000여만원이 지원되며 훈련 용품을 구입하거나 국내·외 훈련과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우수지도자, 트레이너 등의 수당지급도 가능하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우수한 경기력을 보유한 지역 출신 스타급 선수들이 고향에서 더욱 좋은 대우를 받으며 훈련하고 지역의 명예를 드높여 나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도 4개 실업팀이 선정돼 지원금 11억 8650만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도체육회 레슬링팀, 수구팀, 진도군청 육상팀, 목포시청 복싱팀이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공모사업에 신청한 4개팀이 모두 선정돼 뜻깊다"며 "전남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선수 연계육성과 전남체육 진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보성서 다음달 전국 장사씨름대회 첫 개최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세계차엑스포와 연계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오는 4월 30일 전남 보성 다함제육관에서 열린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남 군청 소회의실에서 대한씨름협회와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이광수 보성체육회장, 김경열 보성군씨름협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

름대회는 보성세계차엑스포와 맞물려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3년간 보성군에서 열린 예정이다.

중·초·고·대·일반부·여자부 등 개인전 6종목과 단체전 5종목으로 열리며 선수 등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국장사 씨름대회 첫 시작을 보성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조재호, 한국인 첫 프로당구 왕중왕 등극

PBA 월드챔피언십 우승...스롱 피아비 여자부 정상에

'슈퍼맨' 조재호(NH농협카드)가 한국인 최초로 프로당구 왕중왕으로 등극했다.

조재호는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JTBC 스튜디오 일산에서 열린 SK렌터카 PBA-LPBA 월드챔피언십 2023 PBA 결승에서 다비드 마르티네스(스페인·크라운해태)와 4시간 혈투 끝에 세트 점수 5-4(12-15 15-12 7-15 15-8 9-15 15-12 15-7 11-15 15-8)로 승리했다.

초대 우승자 다비드 사파타(스페인·블루원리조트), 2회 우승자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웰컴저축은행)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월드 챔피언'에 오른 조재호는 우승 상금 2억원과 랭킹포인트 20만점을 추가해 시즌 상금(4억2250만원)과 포인트랭킹(46만1500점)까지 2관왕을 차지했다.

누적 상금도 종전 5위에서 쿠드롱(8억9450만원), 사파타(6억4900만원)에 이은 3위(5억300만원)로 올라섰다.

이번 시즌 개막전인 블루원리조트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조재호는 정규시즌 최종전 크라운해태 챔피언십에 이어 월드챔피언십까지 석권하며 시즌 3승으로 프로 데뷔 후 최고 성적을 냈다.

경기가 끝난 뒤 조재호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부담이 너무 컸다. 그런데 경기에서 응원 목소리가 들리면서 지기 싫은 마음이 생겼



조재호가 지난 11일 열린 SK렌터카 PBA-LPBA 월드챔피언십 2023 PBA 결승에서 우승 후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며 "다음 시즌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많이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열린 여자부 LPBA 결승에서는 스롱 피아비(캄보디아·블루원리조트)가 김가영(하나카드)을 세트 점수 4-3(11-6 8-11 11-5 11-3 9-11 8-11 11-10)으로 제압했다.

지난 시즌 같은 대회에서 김가영에게 당한 패배를 1년 만에 설욕한 스롱 피아비는 처음으로 월드챔피언십 정상에 등극했다.

동시에 LPBA 무대에 뛰어들어 이후 통산 5승째를 거두며 김가영과 함께 LPBA 최다승 타이틀을 이뤘다. 또한 정규투어와 팀 리그, 월드챔피언십까지 모두 우승한 '그랜드슬램'을 LPBA 최초로 이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스즈메의 문단속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스즈메의 문단속,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2관	대외비
3관	서치 2,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4관	스즈메의 문단속, 바다 탐험대 옥토포닉 육지수호 대작전: 열대우림을 지켜라!
5관	카운트
6관	스즈메의 문단속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7관 씨네커틀	서치 2, 똑똑똑,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크리스 3
8관 씨네커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멍뭉이, 6번 칸, 콜 제인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BALLET CURATION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롱콘서트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415-5502 / 062-522-8716